美 상류층 단골 디자이너
수재나 정 포레스트 LA 현지 인터뷰

힐러리 룩을 만든 미다스의 손

누군가는 성공한 남자의 상징을 '몰블랑 만년필'이라 했다. 그렇다면 성공한 여성의 상징은 무엇일까? 여성들의 롤 모델 힐러리 클린턴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그녀는 아마 이런 대답을 했을지 모른다. "성공한 여성은 '수재나'를 입는다"라고.

기획_최은정 기자 취재_이경민(LA중앙일보) 기자 사진_김상진(LA중앙일보) 기자

'수재나 비벌리힐스', 수재나 정 포레스트(Susanna Chung Forest:한인 여성)가 비벌리힐스 한복판에서 운영하는 최고급 부티크이자 브랜드의 이름이다. '수재나 비벌리힐스'라는 레이블이 붙은, 한 벌당 4천~6천 달러를 호가하는 맞춤 정장은 오직 이곳에서만 특별히 주문 제작할 수 있다. 아담한 체구의 수재나는 온몸에서 뿜어 나오는 자신감 넘치는 애티튜드와 순간순간의 감각적 눈빛으로 그녀가 글로벌 리더들의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라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직접 디자인한 옷만 입느냐?"라는 질문에 1초도 망설임 없이 "세계 최고의 옷이니까요"라고 대답한다.

수재나의 이름은 미국 정계계 인사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유명했다. 최고 수준의 원단과 재봉으로 만든 고급스럽고도 단정하며, 수수하고도 매력적인 맞춤복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그녀의 옷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최상류층 여성 CEO들과 악만장자의 부인들이 단골로 입은 브랜드 중 하나다.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존스 뉴욕' '나인웨스트' 등의 소유주인 시드니 킴벨의 부인 캐롤라인 킴벨도 '존스 뉴욕'이 아닌 '수재나 비벌리힐스'를 입는다. 톰스타 바버라 스트라이샌드, 연 수입 4천5백만 달러의 셀러브리티 관사 주디 셰인들런, 사우디아라비아 황족, 인도네시아 정치 귀족인 수하트라 가문의 여인들도 모두 수재나 마니아다.

하지만 그녀가 상위 1% 여성의 폐쇄적 경계를 넘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디자이너가 된 데는 '힐러리 룩'의 역할이 컸다. '힐러리 룩'이란 늘 흠잡을 구석 없이 완벽하게 피트되는 팬츠 슈트를 입는 힐러리의 스타일을 일컫는 말이다. 짙은 색 정장 일색이었던 미국 여성 정치인들의 패션 세계에 비비드한 컬러와 여성적 라인을 선보이며 전 세계 신문 1면의 '메깔'을 바꾼 혁신으로도 일컬어지는 스타일이다.

> "힐러리는 따뜻하고
> 겸손한 데다 수다 떨기 좋은
> 이웃집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 맨발로 호텔 정원까지 나와 돌아다니는
> 경우도 많아 양말 좀 신으라고 잔소리도 하곤 해요.
> 소탈한 사람이죠"

그녀는 7년째 힐러리 클린턴의 의상을 전담하고 있다. 선거 유세장, 각국 정상과의 만남 현장, 유력 일간지 인터뷰나 시사 주간지 표지 촬영 때도 힐러리 클린턴을 빛낸 것은 수재나 정 포레스트의 옷이었다. 2008년과 2011년 방한 시 입었던 의상도 물론이다. 수재나 덕에 힐러리는 〈뉴스위크〉와 〈타임〉뿐이니라 〈보그〉나 〈하퍼 같은 패션지에서도 러브콜을 보내는 인물이 됐다. 힐러리가 '글로벌 리더'를 넘어 여성들의 '아이콘'이자 '패션 리더'의 지위까지 얻게 한 주인공, 수재나가 힐러리를 만난 것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가 한창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로 떠올랐던 때였다.

"론 버클(미국의 유통 재벌)의 집에서 열린 기금 마련 행사에 초대돼 참석한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힐러리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그녀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더군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저에게 살짝 "내일 개인적으로 만나 의상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해 흔쾌히 승낙했죠." 다음 날 그녀는 힐러리가 묵고 있던 비벌리힐스의 한 호텔로 찾아갔다. 아침 7시의 이른 시간이었지만 힐러리의 바쁜 스케줄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다. 수재나 역시 그동안 힐러리 수준의 고객을 많이 만나봤기에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한 터였다.

"힐러리는 이미 새벽 5시부터 일정을 시작한 상태였고, 제가 막 도착했을 때는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모두 만져주고 난 후였어요. 절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포옹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죠. 보통 수많은 대중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을 각자의 비서를 포함해단 4명이 만날 수 있다는 게 행운이었죠."

일단 꿈꿈하게 처수를 뗐다. '수재나 비벌리힐스'의 영업 비밀 중 하나는 모든 고객의 체형을 정확히 잰 후 그와 똑같은 마네킹을 만들어 옷을 제작하는 것이다. 힐러리에게도 그 전략은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 홀랑한 옷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매력을 지녔는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체형이나 눈빛은 어떤지 등 알아 가야 할 게 많았다.

인연은 그냥로 끝이 아니었다. 2007~2008년에는 힐러리가 LA를 방문할 때마다 호텔로 찾아가 그녀를 만났다. 국무장관이 된 후에는 해외 순방이 많아 예전만큼 자주 보진 못했지만 잠깐이라도 짬이 나면 곧 서로 얼굴을 보곤 했다. 둘은 '절친'이 된 셈이다.

"처음 만날 땐 대중 앞에 섰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연설할 때와 같이 강인하고 냉철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따뜻하고 겸손한 데다 수다 떨기도 좋은 이웃집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맨발로 호텔 정원까지 나와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아 양말 좀 신으라고 잔소리도 하곤 해요. 소탈한 사람이죠."

두 사람이 만나면 호텔방에선 옷음이 떠나지 않았다. '철의 여인' 힐러리 클린턴이 수재나 앞에선 '옆집 아줌마'로 변하는 것이다.

"유머 감각이 정말 빼어나세요. 함께 있으면 깔깔대며 웃느라 정신이 없죠. 자녀들 얘길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 보좌관들이 다음 일정이 있다고 재촉한 적도 많아요. 너무 빡빡한 일정에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불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천성적으로 의지가 대단한 분 같아요. 피곤해 보일 때는 휴가를 떠나보라고 권하지만 너무 바빠서 엄두도 못 내죠."

수재나가 힐러리의 의상을 만드는 과정에는 '연구'와 '전략'이 따른다. 수재나의 주요 일과 중 하나는 힐러리의 공식 일정을 업데이트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녀가 방문할 곳의 기후와 문화, 행사 분위기나 참석자 등을 분석하고 판단해 옷을 디자인한다. 완성된 의상은 'TV 토론' '오하이오 유세' '케냐 방문' 등 각각의 용도를 명기해 우편으로 보낸다. 당내 경선 캠페인이나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혔을 때는 의상 제작 일정이 아주 바쁘게 돌아간다. 그럴 때는 직접 이메일을 통해 소통한다. 이 정도면 수재나를 힐러리 정치 인생의 최측근이라 불러도 무방할 수준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오?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힐러리가 핀저 컬러 슈트를 입고 등장했을 때요. 그 이벤트용으로 다섯 벌을 디자인했던 터라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궁금했는데 화사한 핀저진 슈트를 입고 등장한 순간 너무도 멋지셔 온몸에 얼얼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와!' 하는 탄성이 옆에서 들리는 듯했어요."

전 세계 톱 디자이너들이 힐러리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애를 쓰지만 힐러리가 수재나를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재나 비벌리힐스'가 힐러리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옷이라는 점이다.

"클린턴의 몸매는 정말 훌륭해요. 딱딱한 이미지와 달리 허리가 가늘고 몸의 굴곡도 훌륭하죠. 피부도 투명하고 눈동자 색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상의 옷도 아주 잘 소화해내죠. 특히 레드와 로열 블루 색상, 마카 실크 소재 옷은 정말 잘 어울리죠. 나를 만나기 전에는 캐럴 색상의 의상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몇 번 시도해보니 아주 멋지게 소화해냈죠. 요새는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미국 시민'으로 돌아왔으니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섹시한 스타일을 시도 중인데, 이 역시 그녀는 완벽히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때문일까? 힐러리는 전적으로 수재나를 믿고 신뢰한다. "당신 방식대로 하세요(Do it your way)." 힐러리가 수재나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수재나 역시 존중해야 할 영역은 철저히 지킨다.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나 구두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식이다. 또 하나, 수재나의 옷은 힐러리 클린턴의 생활 패턴을 완벽히 이해하는 디자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수재나는 힐러리와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여성들의 옷을 수백, 수천 벌씩 만들어왔다. 그러니 누구보다 그들의 옷이 가져야 할 덕목을 잘 알고 있다.

"제 옷을 찾는 사람들은 매일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중요한 미팅을 합니다. 대중 앞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가장 '편안'하면서도 가장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가장 '포토제닉'한 옷으로 수재나 비벌리힐스를 발전시켜 왔어요."

출장이나 공무 수행을 위한 비행 중에도 편안히 입을 수 있는 옷이란 점은 여성 CEO들에게 수재나 옷의 가장 큰 매력이다. 깔끔한 라인에서 묻어나는 프로페셔널한 분위기, 화사한 색상이 주는 우아함, 미디어에 노출됐을 때 '사진발'을 잘 받는 옷이란 점 또한 성공한 여성들을 열광시킨 요소가 된 것.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옷에서 '겸손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의 부인 같은 경우 공적인 자리에서 남편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단순하고 우아한 차림이 중요하죠. 그래서인지 그동안 부인 손을 잡고 먼저 저를 찾아오는 억만장자 남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세월 속에서 배우고 익힌 지혜일까? 혹은 '넘프' 힐러리를 위한 깊은 배려일까? 수재나는 지금껏 힐러리에게 만들어준 옷의 수량이나 가격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한다. 수백 수천만 달러의 마케팅 가치가 있다 해도 는 하나 깜짝 안 한다. 혹시나 사람들에게 '힐러리 클린턴이 사치스럽다'는 인상을 주게 될까 하는 걱정에서다.

"죽어도 밝히지 않을 나만의 '비밀'이죠. 그게 가십거리가 된다는 건 제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힐러리의 이름을 내걸고 마케팅하는 것도 자제해왔죠. 우리는 프로이니까요."

힐러리가 언젠가 수재나에게 보냈던 감사 편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당신의 노고와 프로페셔널리즘, 훌륭한 디자인은 늘 저를 편안하고, 흡족을 대 없이 완벽하고, 기분 좋게 해줘요. 이 놀라운 여정에 한 부분이 되어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재나 비벌리힐스가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수재나는 한국 정계계의 뉴스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이 자주 뉴스에 오르내린다는 점도 그녀의 관심을 끈다.

"박 대통령의 패션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우아한 스타일이시더군요. 기회가 된다면 박 대통령을 만나 서구적인 느낌과 여성성을 살린 디자인의 팬츠 슈트를 디자인해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얼마 전부터 준비하는 사업이 하나 더 있다. 시작은 한 어린 여학생에게서 받은 편지였다. "당신의 옷을 입는 여성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언젠가는 꼭 '수재나'를 입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여학생의 편지 덕에 수재나는 맞춤 정장이 아닌 젊은 여성을 위한 기성복 라인 론칭에 들어갔다.

"그동안 저는 성공한 여성들만 만나왔어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성공하면 '수재나'를 찾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면 '수재나'를 입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모든 여성이 즐겨 입는 기성복 정장 라인을 꼭 성공시킬 겁니다."

수재나 정 포레스트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69년 도미했다. 이민 시절 구세군으로부터 받은 월동 간복 덕에 접어 있던 유럽 패션 잡지를 접하며 디자이너를 꿈꿨다. 집도 없이 지내서 목장을 지어 패션 스쿨을 마친 후 1976년 비벌리힐스에 자그마한 부티크를 오픈했다. 80년대에는 TV와 영화 의상 부문에 주력해 (HBO보비) (원초적 본능) 등 1백20여 편의 작품에서 활약했고, 브루스 윌리스의 출세작인 드라마 (문라이팅)을 통해 1987년 에미상을 거머쥐었다. 90년대 접어들어 상류층 여성들을 위한 정장 제작으로 경영 방침을 바꾸어 세계 100대 여성 CEO로 손꼽히는 이들이나 억만장자들의 클럽 '포천 500'에 소속된 여성들의 맞춤복 디자이너로 입지를 굳혔다.